

【한일공동성명】

다음세대를 위한 평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
핵무기금지조약교섭을 즉시 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폭투하된지 71년을 맞는 나가사키에 제9회 PEACE&GREEN BOAT 가 입학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으로 공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폭투하로 생명을 빼앗긴 한반도에서 온 분들을 포함해 수 많은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핵무기폐기와 평화를 호소하고 계신 한일 피폭자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피폭지방문이 실현된것도 이러한 피폭자 여러분이 긴 세월을 걸친 노력의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쟁을 포기한 일본의 평화헌법의 의의를 우리는 다시금 재확인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가 경험한 비인도적인 과멸과 세계 각지의 핵실험으로 인해 사람들과 환경에 미칠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생각할 때 핵무기가 두번 다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지 사용할 수 없음을 보증하는 것은 인류사회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아시아에서는 핵을 포함한 군비경쟁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우려할 사태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이 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구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의 원전가동은 나가사키원폭의 재료물질인 플루토늄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이 예고 없이 과멸적인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우리는 진지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핵무기금지조약교섭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정부의 책임은 중대합니다. 한일정부는 핵억지력이라는 공포논리에 의거한 정책을 취하며 핵무기금지조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을 완전히 전환시켜 핵무기금지조약교섭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교섭을 진행하는것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움직임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연결됩니다.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될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점을 국제적인 법규범으로 확립해 인류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8월 5일
나가사키에서

PEACE&GREEN BOAT 2016
환경재단 피스보트